

요구르트젤리·수박바젤리·꼬깔콘젤리·사이다젤리·스크류바젤리…

컬래버레이션 젤리 먹어봤니?

롯데제과, 젤리에 인기음료·빙과 접목
독창적인 맛·식감…포장디자인도 매력
국내 젤리시장 1500억원대 성장 견인



유통

젤리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국내 젤리 시장은 2014년 680억원, 2015년 1000억원, 2016년 153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롯데제과는 지난 3년간 120억원, 150억원, 380억원으로 크게 오르며 젤리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체 젤리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20%를 넘어섰다. 롯데제과의 젤리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단순했던 젤리를 매력적인 간식으로 탈바꿈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음료·빙과시장 인기 제품을 젤리로

컬래버레이션 젤리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요구르트 젤리’를 비롯해 ‘딸기 요구르트젤리’, ‘수박바 젤리’, ‘꼬깔콘 젤리’, ‘사이다 젤리’ 등 음료·빙과 시장에서 명성이 높은 제품을 콘셉트로 개발한 제품들을 말한다. 롯데제과는 컬래버레이션 젤리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요구르트 젤리’의 경우 출시 3개월간 누적 매출이 20억원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올해도 1·2월 매출이 각각 2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다. 지난 10개월간 누적 매출은 150억원에 육박한다.

‘요구르트 젤리’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것은 요구르트와 젤리라는 서로 다른 먹거리가 컬래버레이션하면서 파급 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또 맛과 식감이 독창적이고, 포장디자인이 요구르트병 모양이어서 큰 재미를 부여한 것도 인기를 얻는 이유이다.

한편 ‘수박바 젤리’와 ‘스크류바 젤리’도 재미와 색다



롯데제과는 최근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컬래버레이션 젤리와 프리미엄 젤리를 개발하며 국내 젤리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7 롯데제과 젤리 제품들. 사진제공 | 롯데제과

른 식감으로 인기가 오르고 있다. ‘수박바 젤리’는 지난해 9월에 출시되어 올해 2월까지 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스크류바 젤리’는 올해 2월 출시되자마자 단숨에 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사이다 젤리’, ‘콜라 젤리’ 등도 친숙한 맛과 디자인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프리미엄 젤리 ‘팜온더로드’도 인기

프리미엄 젤리로 불리는 팜온더로드 젤리들도 약 5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인기를 얻고 있다. 팜온더로드 젤리는 ‘원물로 만든 농장과자’라는 콘셉트로 개발됐으며 ‘블루베리 스노우 젤리’, ‘딸기 큐브 젤리’, ‘감귤 풍당 젤리’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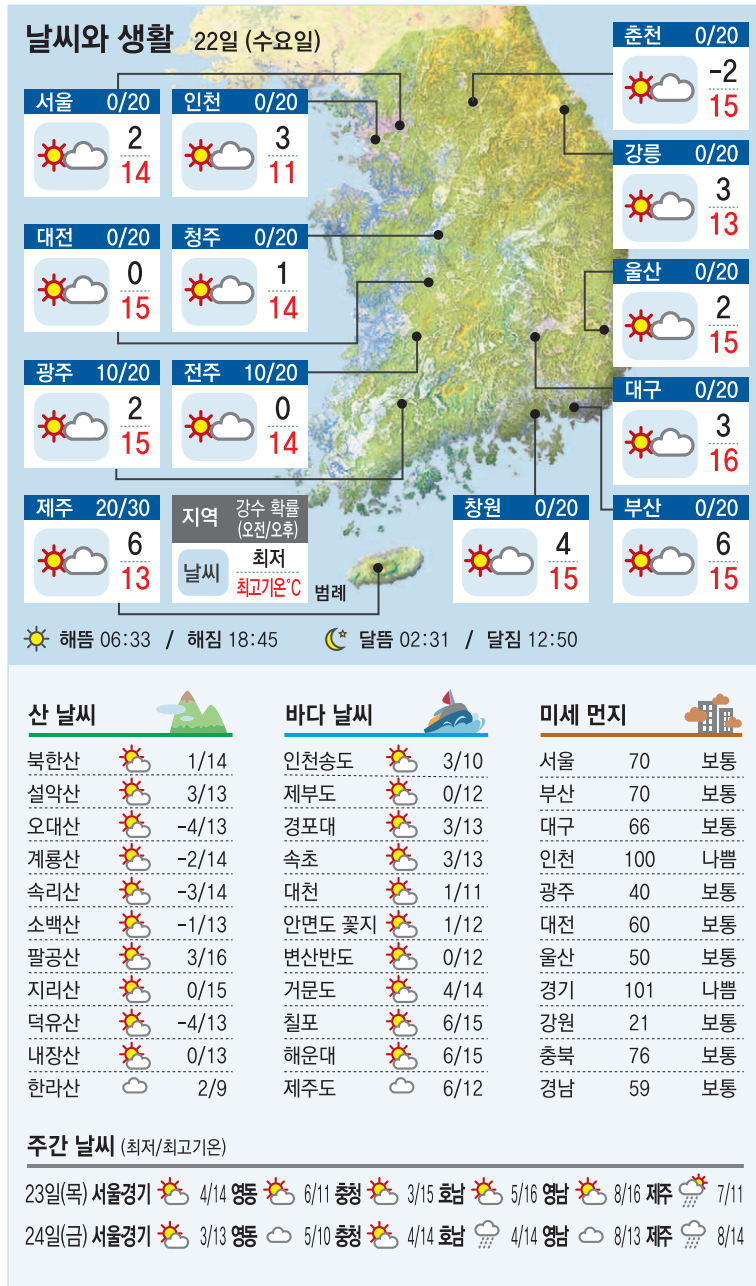
‘블루베리 스노우 젤리’는 블루베리 과즙이 20% 이

상 함유되어 블루베리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딸기 큐브 젤리’는 천혜의 환경을 가진 충남 논산 딸기농장에서 직접 구한 딸기가 30% 이상 함유되어 풍부한 딸기 맛과 식감으로 인기다.

한편 롯데제과는 컬래버레이션 젤리와 프리미엄 젤리 외에도 젤리추잉 시장을 겨냥한 ‘트위즐러 젤리’도 판매 중이다. ‘트위즐러 젤리’는 파배기 형태, 쫄쫄한 식감, 상큼한 과일맛이 조화를 이루는 젤리로서 새로운 천연과즙이 함유되어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제과는 앞으로도 계속 색다른 젤리 제품을 내놓고 판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매출규모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22일(수요일) 음력:2월 25일

	쥐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가을비, 떠나고 싶다. 운세: 꿈은 크나 현실이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형제나 친구들의 조언을 구하면 좋겠다. 오늘은 인덕이 있는 날이다.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성공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타인의 일에는 간섭하지 말며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라.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번민이 따르니 자제와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머리를 쓰라.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길방:북
	토끼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싸움, 소심한 날. 운세: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번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길방:남
	용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확장이나 변화를 원한다면 과감한 행동을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길방:남
	뱀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국가의 정신이 필요할 때이다. 길방:동
	말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여유비, 겨우 해결. 운세: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도록 하라.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혼자서 일처리라지 말라.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보다 긍정적인 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나아지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쾌청, 환한 하루. 운세: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 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뜻밖의 좋은 만남이 있겠다. 길방:남
	돼지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იდ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길방:서
	재운코너	금주의 로도 행운번호: 1,3,6,8,(2,4)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소,뱀,닭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호랑이,말,개

볼보 ‘크로스 컨트리’, 세단·SUV 장점만 모았네

세단 같은 부드러운 주행·정숙감 제공
오프로드·장거리 투어링 능력 뛰어나



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1일 90시리즈의 마지막 플래그십 모델인 ‘더 뉴 볼보 크로스 컨트리(Cross Country)’를 출시했다.

‘크로스 컨트리’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볼보자동차만의 독특한 세그먼트이자, 크로스 오버 모델이다. 볼보자동차의 V90을 기반으로 전고와 지상고를 높여 세단의 주행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륜구동 SUV의 퍼포먼스와 활용성까지 지녔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현대인들에게 SUV를 대체하는 새로운 차종으로 주목받기 충분하다.

오프로드나 장거리 투어링 능력도 뛰어나다. 스프링과 완충기의 댐핑 컨디션을 조정한 투어링 새시를 적용하고, 타이어 편평비(타이어 단면폭에 비례한 높이)를 높여 세단과 같은 부드러운 주행과 정숙감을 제공한다. 또한 앞뒤 윤거를 각각 1652mm, 1643mm까지 넓혀 코너링 시 좌우 하중 이동을 최소화하고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크로스 컨트리의 최저 지상고는 210mm로 일반적인 SUV와 유사하다.

국내 출시되는 크로스 컨트리는 볼보의 새로운 엔진계통인 ‘드라이브-E’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2.0리터 4기통 D5 트윈터보 다릴 엔진을 탑재했다. 여기에 8단 자동 기어트론닉과 사륜 구동 방식



더 뉴 볼보 크로스 컨트리

으로 최대 출력 235마력, 최대 토크 48.9 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세계 최초 지능형 연료분사 기술인 i-ART와 터보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파워펄스(Power Pulse)를 적용해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갖췄다.

외관은 T자형 헤드램프와 세로형 그릴 등 새로 위진 볼보의 아이코닉 디자인에 42mm로 커진 타이어 직경에 맞는 휠 아치 익스텐션을 적용해 역동성을 살렸다. 내부는 천연 나뭇결을 살린 월넛 우드 트림과 볼보만의 인체공학적인 시트 등 포근함과 안락함을 더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을 완성했다.

‘크로스 컨트리’와 ‘크로스 컨트리 프로’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며, 판매 가격은 각각 6990만원, 7690만원이다(이상 VAT포함).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SM6, 자수정의 보랏빛 입는다

국산 중형세단 첫 ‘아메시스트 블랙’ 적용

르노삼성자동차가 2017년형 SM6에 새롭게 추가한 ‘아메시스트 블랙(Amethyst Black)’ 컬러를 오는 31일 개막하는 2017 서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한다.

컬러만으로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아메시스트 블랙이 국산 중형 세단 시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컬러이기 때문이다. 아메시스트 블랙은 예로부터 귀족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일컬어진 자수정의 질을 보랏빛에서 영감을 얻은 색상이다. 자수정의 보랏빛을 모티브로 하되, 보는 각도와 조명에 따라 검정에서 보라까지 마치 마법처럼 다양한 시각적 느낌을 연출한다.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SM6의 쌍둥이모델 탈리스만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럭셔리 크로스오버 에스파스의 최고급 트림 ‘이니셜 파리’에 적용되며, 르노그룹의 프리미엄 모델을 대표하는 상징색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7년형 SM6는 사양도 일부 업그레이드 됐다. 차량의 정숙성을 높여주는 차음원도실드 글라스(렌터가/GDe PE 제외)와 LED 주간주행등이 가장 낮은 트림에까지 기본사양으로 들어갔다. 2017년형 SM6의 가격은 2440만~326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 인사

BC카드 <승진> ◇상무 ▲인재경영본부장
김경주 ▲글로벌본부장 변승현 ▲브이피 CEO 김준 ◇실장 ▲인사지원실장 손운선 ▲커머스사업실장 오정수 <전보> ◇상무 ▲경영전략본부장 채병철 ▲디지털본부장 최정운 ▲가맹점본부장 장길동 ◇실장 ▲기획실장 오성수 ▲시너지실장 김태식 ▲핀테크실장 장성철 ▲디지털사업연구소장 한정섭 ▲가맹점사업실장 김규형 ▲발행영역실장 원상현 ▲글로벌사업실장 이혁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8 9 7 8 9 4 2 1 6	4 2 9 7 9 8 6 1 8
9 6 8 2 7 1 9 8 4	8 6 8 2 4 1 7 9 9
4 2 1 6 8 9 7 8 9	1 9 7 6 8 9 2 4 8
7 8 9 4 1 2 8 6 9	8 9 9 8 7 4 1 6 2
9 1 2 8 8 6 4 9 7	2 4 6 1 8 9 9 8 7
6 8 4 9 9 7 8 2 1	7 1 8 9 6 2 4 8 9
2 7 9 1 6 8 9 2 8	9 8 1 4 2 8 9 7 6
8 4 6 7 2 9 1 9 8	9 7 2 8 1 6 8 9 4
1 9 8 9 4 8 6 7 2	6 8 4 9 9 7 8 2 1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강주현의 퍼즐월드

	4	9			5		6	
8				2				3
			8		1			2
1		3		5		7		
	6		9		8		1	
		8		1		6		4
6			5		9			
7				4				6
	1		7			4	5	

1		3		5		7		9
			9		3			
9		6		2		1		5
	3						1	
4		5				9		2
	9						5	
3		2		8		4		1
			1		2			
8		9		6		5		7